

“광주의 미래 좌우할 동력...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광주형 일자리 성사 주역 이용섭 광주시장

현대차·노동계에 신뢰 주며 적극 중재
임금유예기간 조정으로 대타협 끌어내
대한민국 경제 희망의 아이콘 부상

판매·경영 전문가에 경영 맡기고
장기적으로 친환경자동차 생산 전환
시장성과 수익성 확보할 수 있을 것

자동차클러스터까지 들어서면
빛그린산단 1만2000개 일자리 생겨
청년 돌아오고 풍요로운 광주 첫 걸음

지난 1일 오후 광주시장 시장실에서 만난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전날(지난 1월 31일) 열린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식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다. 면밀히 준비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합구하는 그의 업무 스타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빛났다.

지난 1월 30일 밤늦게 협상 타결 분위기를 감지한 광주일보 취재진 등이 집요하게 물었지만, 그는 “지역노동계의 입장을 아직 모르겠다”며 말을 삼갔다. 지난해 1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됐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약 유예조항’이 문재돼 결국 무산됐던 쓰라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오전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종해 의장의 의중을 재차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과 파행이라는 난항과 곡절을 거쳐 간신히 궤도 위에 올라섰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광주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신으로 가득한 노사가 상생의 가치 아래 모이는 것도 힘든 여건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틀을 지키며, 자동차 위탁생산 합작법인 및 공장을 운영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길 예정이며, 가격과 품질에서 자신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근간으로 한 ‘노사상생도시’의 큰 그림을 최근 천명하 바 있다. 광주·현대차 합작법인 및 공장에 이어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을 적용하는 다른 사업체에 대한 인종 및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지역산업과 경제를 되살려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풍요로운 광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광주시민을 넘어 전국민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희망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합작법인 1대주인 광주시의 대표자인 이 시장 역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됐다. 하지만 그는 “광주이기에 가능했으며, 광주이기에 헤쳐나갈 수 있으며, 광주이기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150만 광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셨는데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었다. 이번에 타결돼 한시름 놓았다. 광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대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택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정권,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150만 광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셨는데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었다. 이번에 타결돼 한시름 놓았다. 광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대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택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정권,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일 시청 집무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저녁이었다. 타결을 눈앞에 두고 조항 하나(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 때문에 무산되면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컸다. 문제는 신설법인 노사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기간에는 오랜 노사 간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급하게 봉합하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현대차와 지역노동계를 설득해야 했다. 직접 협상 단장을 맡아 현대차에게는 광주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기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노동계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광주가 노사상생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밝히고, 노동계와의 협력을 위해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 상당)를 임명했으며, 노동협력관을 신설한 것도 이 일환이었다.

-문제가 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은 어떻게 조율했는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독일의 ‘아우토 5000’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폭스바겐이라는 기업이 제안한 노사 대타협의 산물이다. 지자체가 제안하고 노사민정을 한 데 얽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시도다. 이 조항에 대해 지역노동계는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으며, 현대차는 추가 투자를 받고, 신설 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

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현대차를 붙잡고 부속사를 만들어 ‘35만대 생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경영 효과가 창출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해 지역노동계를 진정시켰다. 또 현행법 체계상이 조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광주시가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노사상생을 근간으로 앞으로 노동계와 협의해 여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2021년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2월부터 추가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신설법인 출범을 위해 투자자 모집을 조만간 완료하고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합작법인 설립 자본금 2800억원 가운데 40%(광주시 590억원, 현대차 530억원 등 1120억원)를 제외한 60%(1680억원)를 모아야 한다. 현대차, 노동계와 TF를 구성해 지역 상공인,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본금 출자를 받겠다.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합작법인 설립과 함께 공장 착공도 올해 안에 해야 한다. 자자본금 이외에 4200억원의 산업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겠다. 지난해 11월 산업은행장을 만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니 다시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다. 다만 산업은행 한 곳에서 이를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목소리,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친환경자동차가 지금은 시장성도 낮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UV 경차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자동차로 바꾸어 나갈 예정이다. 가격경쟁력과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광주산 SUV 경차는 시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향후 라인 증설,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재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올해 설립되는 합작법인의 운영 계획은.
▲합작법인의 대표는 현대차, 지역노동계를 떠나 전문경영인을 모셔 세계적 경영력을 갖춘 독을 해야 할 것이다. 판매, 경영 전략을 갖춘 분야였으면 좋겠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으로 많은 사안들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단순히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만이 아니라 노사상생도시로 거듭나게 될 광주의 노사 갈등·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광주,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 하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광주는 미래를 좌우할 동력을 마련했다. 광주는 그동안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특별한 자원이 없고 입지나 접근성도 다른 도시에 비해 유리하지 않았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근간으로 한 노사상생도시로 나아가며 이를 모두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빛그린산업단지까지 들어오면 자동차 공장에 이어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1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빛그린산단에는 공공인대주택, 공공육아시설, 개방형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산단 내 모든 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빛그린산단이 광주형 일자리 산단이 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광주를 찾을 것이며,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광주시정이 정상궤도에 안착했다.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정작 ‘이용섭표 정책’은 아직 시민들께 보여드리지도 못했다. 군공항 이전이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은 이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7개월여가 지났는데, 마치 몇 년이 흐른 것처럼 정신없이 지냈다. 민선 7기 4년이 지나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세요면 좋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